이봉창의거의 역사적 성격과 그 평가

김도형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2. 이봉창은 왜 '일왕'을 대상으로 삼았는가
3. 이봉창의거 후 김구는 무엇을 하였는가
4. 이봉창의거를 원조한 하와이의 한인들은 누구인가
5. 이봉창의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6. 맺음말

1. 머리말

이봉창의 동경의거가 일어난 지 80주년이 지났지만, 그의 의거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내려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일왕을 겨눈 독립투사 이봉창』이라는 간략한 열전을 통해 그의 생애와 의거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를 해명한 바가 있다.[1] 그렇지만 이봉창에 대한 연구는 이제야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이봉창의거와 관련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검토하고자 한다.

1) 김도형, 『일왕을 겨눈 독립투사 이봉창』, 독립기념관, 2011.

우선 첫 번째로 이봉창이 의열투쟁의 대상으로 굳이 '일왕'을 지목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봉창이 총리대신, 조선총독 등 일제 침략의 원흉들이 많지만 굳이 '일왕'을 처단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봉창의 '동경의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봉창의거 배후에는 '김구'가 있었고, 그는 동경의거가 실패한 후에도 제2의 이봉창, 제3의 이봉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일제는 '동경의거'의 배후가 '김구'라는 사실을 의거 발생 다음날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일제는 김구를 체포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였지만 프랑스조계 당국이 그의 체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체포하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김구는 이봉창의거에 이어 윤봉길의 홍구공원의거, 유상근·최흥식의 대련의거 등의 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봉창이 '동경의거' 직후 일제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 일제의 수사에 혼선을 빚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프랑스 경찰당국의 암묵적 비호 등이 김구가 제2의 이봉창, 제3의 이봉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봉창의거, 윤봉길의거를 일으킬 수 있게 한 재정적 지원 문제가 좀 더 정확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백범일지』에 나와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봉창의거를 지원한 하와이 한인들의 움직임과 김구와의 연계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는 곧바로 이어진 윤봉길의거를 해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와이의 한인들이 김구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중심세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적 실체가 밝혀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이봉창의거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봉창의 동경의거는 김구를 단장으로 하는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으로만 이해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봉창의거는 단순한 의열투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명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김구는 이봉창이 일본에서 거사를 준비하는 동안 국무회의를 열고 의거에 대한 의결을 비밀리에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봉창의 의거는 임시정부의 공식기관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친 국가 공적기구의 공식 인허하에 이루어진 의거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봉창은 국가기관의 공적인 명령으로 일왕을 처단한 것이고, 이봉창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제에 피체된 것으로 봐야한다.

이외에도 이봉창의거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밝혀져야만 하는 점이 남아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주목해야만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2. 이봉창은 왜 '일왕'을 대상으로 삼았는가

동경의거 직후 한국독립당은 1932년 1월 9일 이봉창 의거에 대해 짤막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상해에서 발행되고 있는 중국인 경영의 국민통신사는 1월 11일자로 「한국독립당 통전(通電)」이라는 표제 아래 전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2)]

> 본당(本黨)은 삼가 한국 혁명용사 이봉창이 일본황제를 저격하는 벽력일성(霹靂一聲)으로써 멀리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새해 행운을 축복하고 이와 함께 환호하며 즉각 제국주의자의 아성을 향해 돌격하여 모든 폭군과 악한 정치의 수범을 쓰러트리고 제거하여 민족적 자유와 독립의 실현을 도모할 것을 바란다.

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2008, 19쪽.

대한민국 14년 1월 9일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에서는 위의 선언을 통해 이봉창이 일왕을 제거하여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실현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봉창의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할 때 자료의 내용이 다른 기록이 있다. 그것은 '일왕 처단'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 하는 점이다. 김구의 기록인 「동경작안의 진상」이나 『백범일지』에는 일왕 제거에 대해 이봉창이 먼저 발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제측의 기록에는 김구가 일왕의 제거에 대해 이봉창에게 권유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일왕을 처단하고자 한 것은 김구가 먼저 제의한 것이 아니라 이봉창이 제의하였다고 하였다.[3] 이 문제에 대해 자료를 통해 좀 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 다시금 상술하고자 한다.

'동경의거'를 계획하는 과정에 대해서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동경작안의 진상」이나 『백범일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이봉창이 민단을 찾아와 민단 직원들과 술과 국수를 사서 같이 먹다가 술이 얼큰하여 반쯤 취기가 돌자 민단 직원들과 주담(酒談)을 하기를,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일본 천황을 왜 못 죽입니까? 내가 작년 동경(東京)에서 천황이 능행한다고 행인을 엎드리라고 하기에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게 지금 폭탄이 있다면 쉽게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4] 이 말을 유심이 듣고 있었던 김구는 이를 놓치지 않고, 이봉창을 찾아가 그의 진심을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이봉창은 김구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털어 놓고 그가 일왕을 처단하자고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동경작안의 진상」에도 일왕을 처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봉창이 먼저 제의하였다고 한다. 「동경작안의 진상」에는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다음

3) 김도형, 『일왕을 겨눈 독립투사 이봉창』, 66쪽.

4)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23쪽.

과 같이 말하고 있다.[5]

> 그가 정부통신처(政府通訊處)에 자주 옴으로 다수한 동지는 그와 친근히 지내는 나를 불가(不可)하게 생각하였다. 하루는 그가 또 와서 수삼(數三) 직원과 함께 식당에서 주효(酒肴)를 준비하고 통음(痛飮)하였다. 그는 취흥(醉興)이 도도(滔滔)하여 그 동지들에게 향하여 묻기를 "왜황(倭皇)을 도살하기는 극히 용이한데 하고(何故)로 독립운동자들이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합니까"하였다. 만좌(滿座)한 동지들은 비웃는 태도로 코웃음 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용이할진대 아직까지 왜 못죽였겠소"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또 말하기를 "내가 연전(年前)에 동경에 있을 때 어느날 일황이 엽산(葉山)에 간다고 하기에 왕견(往見)하였는데 일황이 내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이때에 나에게 총이나 작탄이 있으면 어찌할까' 하는 감촉(感觸)이 얼른 생겼었습니다" 하였다. 이 대화를 밖에서 귓결에 들은 나는 도저히 무심할 수 없었고 도리어 만심환희(滿心歡喜)하였다. 그러나 좌석이 번요(煩擾)했으므로 모르는 체하고 말았다.

라고 하여, 앞의 『백범일지』와 같이 이봉창이 민단원들과의 술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일왕을 척살'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제의 자료를 검토해 보자. 이봉창은 김구와 세 번째의 만남이 있은 1931년 4월 말경 '일황의 척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한다.[6]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제2회 「신문조서」에서 분명히 그는 "혹시 폭탄이라도 손에 넣으면 이것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 신명을 걸고라도 일본 천황 폐하를 죽여 조선의 독립을 촉진하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기 때문

5) 홍인근, 『이봉창 평전』, 나남출판, 2002, 「부록」, 342쪽.
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2008, 6쪽.

에 그 뜻을 털어 놓으며 나의 굳은 결심을 밝혔"[7]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백범은 "일본 천황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촉진하려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적당한 인물을 물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혹시 군이 그처럼 굳은 결심을 갖고 있다면 조선민족을 위해 독립의 희생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8]라고 하여, 이봉창의 결심을 듣고 다시 권유하는 형식이었다. 또한 1월 10일 「청취서」에도 이봉창은 "폭탄이라도 손에 들어오면 일본 내지로 가서 천황의 행차 때 폭탄을 던져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결심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며 내가 강한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 보였"[9]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6회 「신문조서(1932. 2. 12)」에는 제2회 「신문조서」나 「청취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봉창이 민단 사무실을 찾아가 김동우와 이야기 할 때 김구가 들어왔다. 김구는 이봉창에게 "천황 폐하가 드나드실 때 경계는 엄중한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등을 물었다.[10] 김구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질 수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봉창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은 손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봉창은 일왕을 제거하기 보다는 총리대신이나 기타 조선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고관을 죽이는 편이 효과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구는 "아니, 그러지 않다. 폐하를 죽이는 편이 훨씬 효과가 있으며, 또 세계 각국에도 강한 영향을 준다"[11]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봉창은 "천황폐하에게 위해를 가하면 조선독립운동이 촉진되는 것으로 생각"[12]하였다고 진술

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8쪽.
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8~9쪽.
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98쪽.
1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37쪽.
1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38쪽.
1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39쪽.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봉창에 대한 제2회 「신문조서」에서는 이봉창이 먼저 '일왕 처단'을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6회 「신문조서」에는 김구가 먼저 제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32년 9월 16일 이봉창의 「공판조서」에 의하면, 김구가 이봉창에게 일왕을 처단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고 하고, 이봉창은 "총리대신이나 기타 고관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했다.[13] 그러자 김구는 "조선독립을 달성하는 데는 폐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에게도 강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14] 즉, 「공판조서」에도 제6회 「신문조서」와 같이 이봉창은 총리대신 등 고관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김구의 권고로 일왕을 처단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왜 김구가 쓴 「동경작안의 진상」이나 『백범일지』, 또 「신문조서」·「공판조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가 하는 점이다. 우선 언급해 두고자 하는 점은 일제의 자료인 「신문조서」·「공판조서」는 사실과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봉창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예를 들면, '김구'의 본명을 계속해서 '백정선(白貞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또한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백정선'의 지령에 따라 실행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봉창은 중국 상해를 떠나기 전에 미리 김구로부터 일제에게 피체되었을 때의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김구는 이봉창이 일제의 취조를 받을 때 사진을 꺼내 선언서의 내용만을 말하고, "그밖의 일은 될 수 있는 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15]

---

1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84쪽.

1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83쪽.

1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100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자료에는 사실이 왜곡될 수가 있지만, 김구는 사실을 달리 말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백범일지』와 「동경작안의 진상」에는 이봉창이 취중에 '일왕처단'을 언급하였고, 김구는 이 말을 듣고 그와 함께 '동경의거'를 계획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이봉창은 처음부터 일왕의 처단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왜 그가 일왕의 처단을 제일 목표로 정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1932년 1월 10일 한국독립당에서 다시 장문의 「이봉창이 일황을 저격한 데 대한 한국독립당 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 이봉창이 일왕을 처단하여 얻으려던 목적이 가장 잘 적시되어 있다.[16]

> 한국독립당은 이번 이봉창의 일황 저격사건을 한국민족과 독립운동자의 입장에서 그 전후 인과관계를 밝히며 다음과 같은 선언을 공포하는 바이다. … 그렇다면 일황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 폭악한 일구(日寇)가 저지른 죄악의 모든 책임이 바로 이 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둘, 도둑을 소탕하려거든 먼저 그 수령을 잡으라는 말이 있다. 일황을 제거함으로써 왜적 전체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 셋, 우방인 중국을 대신해 복수함으로써 중·한 두 나라의 우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넷, 하늘을 대신해 정의를 떨치고 왜적의 압박에 신음하는 피침략 민족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 우방국들이 왜적으로 인해 받은 치욕을 갚을 수 있다. 여섯, 왜인을 대신해 독재자를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곱, 일본의 국체를 요동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여덟, 평화와 정의를 애호하는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다. 아홉, 하늘의 뜻을 따르도록 천하의 인심을 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이봉

1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37~38쪽.

창의사가 일황을 저격하고자 하였던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이번 사건은 이봉창 개인의 의사나 행동이 아니고 2천 3백만 한인 모두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의거이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봉창이 출현할 것이고 2천만 한인이 모두 이봉창의 뒤를 따를 것이다.

대한민국 14년 1월 10일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위의 선언문을 통해, 일본의 포악한 죄상을 파헤치고 이봉창이 일왕을 척살하려고 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첫째로는 일제의 폭악한 죄악이 모두 일왕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일왕은 일제침략의 수령이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중국 침략자를 대신 제거함으로써 중국과의 우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이고, 넷째로는 일왕의 제거는 인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다섯째로는 우방국의 치욕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독립당의 선언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섯 번째로 "이번 일황 암살사건은 한인의 손을 빌려 왜인들이 그들의 군주를 시해하려 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평가한 점이다. 일본의 독재자를 이봉창이 대신 제거하려 한 것임으로 일본국민들은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일제의 국체를 동요시키기 위해서이며, 여덟 번째로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요, 아홉 번째로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위의 한국독립당의 선언문은 이봉창이 일왕을 처단하려는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봉창이 의열투쟁의 대상으로 굳이 '일왕'을 정한 이유는 군국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천황'은 국가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침략전쟁은 천황의 명으로 자행되었던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제의 비인간적인 만행과 침략전쟁 등 온갖 불의를 저지른 모든 책임자는 '천황'이었고, 침략과 약탈의 제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지배와 수탈의 최정점에 앉아 있는 '천황'을 인류 양심의 이름으로 척살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것이다.[17]

3. 이봉창의거 직후 김구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봉창은 의거 직후 일제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다. 이봉창은 일제의 신문을 받는 동안 가능한 사실을 은폐하여 일제측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봉창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그는 거사 직후 반드시 일제에 체포될 것이고 체포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봉창은 일제의 수사를 가능한 한 혼선에 빠뜨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자 하였던 것같다. 물론, 중국 상해를 출발하기 전 김구는 이봉창에게 일제가 엄중한 신문을 하게 되면 "상해의 실상을 말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18] 하지만 그는 가능하면 사건을 자신이 단독으로 거행한 것이며, 사건의 배후에는 '백정선'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전략을 가진 이봉창은 의거 직후 체포되어 도쿄(東京)의 경시청으로 연행되었다. 경시청 형사부장실에서 일절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가운데 동경지방재판소의 미야기 나가고로(宮城長五郎) 검사정의 취조를 받았고, 대심원(大審院)이 지명한 동경지방재판소의 아키야마 다카히고(秋山高彦) 예심담당판사의 첫 신문을 받았다. 예심판사의 첫 질문은 이봉창의 이름, 나이, 주소, 본적, 출생지 등 신상에 관한 것이었다.

---

17) 조동걸, 「이봉창의거의 역사성과 현재성」, 『이봉창 의사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 출판부, 2002, 67쪽.

1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100쪽.

그런데, 이봉창이 거사 직후 경시청에 연행되어 이름을 대라고 할 때,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 이름은 '아사야마 쇼이치(朝山昌一)'라고 대답하였던 것같다. 왜냐하면, 1월 8일 오후 이봉창의거에 대한 내무성의 공식 발표문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대부분의 신문에는 그의 이름이 '아사야마 쇼이치'라고 하였다. '아사야마 쇼이치'와 같은 발음의 한자명인 '아사야마 쇼이치(淺山正一)'라고 보도된 신문도 있었다. 처음부터 그는 자신의 본명을 말하지 않으며, 일제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의거 직후 일제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 이봉창은 그의 배후 인물에 대해 '김구'라는 본명을 대지 않고 처음부터 '백정선'이라는 이름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봉창은 일제에 붙들려 치밀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일체 '김구'라는 이름에 대해 발설하지 않았다. 이봉창은 예심담당판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김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다그쳤을 때도 '김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백정선'이라고만 대답하였다. 심지어 제8회 「신문조서(1932. 3. 11)」에서도 일제의 예심담당판사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며 '백정선'이 맞는가 물어보았다. 또 "백정선은 본명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본명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19] 이봉창은 가공의 인물인 '백정선'이 배후임을 주장하였고 '김구'는 끌어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측에서는 이봉창이 말하는 '백정선'이 '김구'임을 확인하였다.

사건 직후 일제는 배후에 임시정부가 있다는 것을 지목하고 검사들을 중국 상해로 파견하여 조사를 하였고, 김구의 행방을 찾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일제가 '백정선'이 '김구'라는 확정을 잡은 것은 의거 다음날인 1월 9일로 추정되고, 바로 정보기관을 통해 김구의 소재 파악과 체포를 지시하였던 것같다. 의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48~49쪽.

거 다음날인 1932년 1월 9일자 상해 일본총영사가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외무대신에게 보낸 두 번째의 신상보고서에서 '백정선'의 정체는 "인상, 연령, 주소 기타 주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이곳 한국임시정부 재무부장, 한국교민단장, 병인의용대 게슌회원 김구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였다.[20]

이봉창이 일제의 조사를 받을 때 '김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않은 것은 그가 충분히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심판사의 신문을 받을 때, 김구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백정선의 실체를 추궁해도 '백정선인 듯하다'며 일부 수긍하면서도 결코 백범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 다만, 제9회 신문조서에서는 제8회까지 한번도 백범 김구의 본명을 거명한 적이 없는 이봉창이 '김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거명하고 있었다.

일제는 동경의거 직후 이봉창의 배후가 '김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에 대한 체포에 착수하는 한편, 프랑스조계 당국에도 그의 체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무라이 구라마쓰(村井倉松) 상해총영사는 이봉창의 거사가 있은 다음 날인 1월 9일 프랑스 총영사 게쿠랑과 회견하고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을 체포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같은날 총영사관의 아카키(赤木) 사무관과 스키무라(衫村) 경부도 프랑스조계의 정치부장 사라레이를 만나 조계 경찰의 협력을 구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강경한 요구에 프랑스조계 당국도 겉으로는 김구의 체포에 적극 협조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임시정부에 주의를 당부하였던 것이다. 프랑스 경찰은 일본측의 요구가 있어 "종래와 같이 임시정부를 비호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하면서, "차제에 각자가 충분히 자중 경계하여 불행한 결과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두 번에 걸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21] 사실 프랑스조계 당국에서는 이봉창의 의거 뒤에는 김구가 있

2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8, 5쪽.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42쪽.

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금후로 김구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알어 할 것이오. 우리를 신뢰할 바 아니라 하였다."[22] 프랑스 조계당국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일제측도 프랑스경찰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같다. 당시 일제도 김구의 체포에 프랑스 경찰이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기는 지난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프랑스 당국이 김구의 체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내에서 베트남 독립운동을 단속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명한 쿠옹데 왕자(Prince Cuong Dé)를 일본정부가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23] 중국주재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일본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한 우리도 그가 요청한 것과 같은 난처한 성격의 도움을 주기 어려움을 일본공사에게 이해시켰"다고 하면서, 프랑스로서는 한국독립운동을 통해 일본내에 있는 베트남 독립운동 단속 요구의 책략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제는 중국 상해에 파견된 카메야마 신이치(龜山愼一) 검사의 지휘하에 일본총영사관 경찰들이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여 김구를 찾는 데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김구는 프랑스조계 내에서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따르면, 김구와 조소앙·박창세·이수봉 등 4명이 난징(南京)으로 도망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경들이 2월 16, 17일 양일간에 정거장에 잠복해 있었다. 또한 김구가 프랑스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 북신신리(北新新里) 17호 혹은 18호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경찰들이 변장하고 미행하였지만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김구의 행방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자 상해의 일본총영사관에서는 다시금 프랑스 경찰청 총장 후이오리에게 김구의 체포에 협력해 달라고 재차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

2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82쪽.

2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93쪽.

김구는 중국인가(中國人街) 혹은 중국여관 등으로 거처를 옮겨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일제로서도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프랑스조계 내에 있으며 임시정부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문만 입수할 수가 있었다. 2월 23일에는 서문로(西門路) 123호에 있는 미신(美新)이발소 앞 집에 나타났다는 소문도 있었고, 26일 오전 11시 반 서문로 226호 김홍일(金弘壹)의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정보도 있었다. 아무튼 김구는 이봉창 의거 이후 또 다른 거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카메야마 신이치 검사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김구를 찾는 데에 전력을 쏟았지만 행방을 추적할 수 없가 없었다. 이에 일본 사법성에서는 검사국의 고다 마사타케(吉田正武)검사와 카메야마 검사를 다시 상해에 보내 이봉창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김구의 체포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봉창의거 이후 김구는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숨어 다녔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원들 조차도 그의 행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다만 그의 최측근인 김철(金澈)·엄항섭(嚴恒燮)·안공근(安恭根) 세 명만이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백범은 홍구공원의거를 앞두고는 주로 프랑스조계 내의 환용로(環龍路) 118의 19호 러시아인 아스타호프 여사(Mrs. Astahoff)의 집 안쪽 2층에서 엄항섭과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여기에 숨어 있으면서 필요한 정보는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김철의 조카인 김덕근(金德根)에게 부탁하여 전달받았다.[24]

2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48쪽.

4. 이봉창의거를 원조한 하와이의 한인들은 누구인가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에 자금을 대어 준 임성우 등의 하와이애국단의 존재와 그 성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경의거'에 사용된 자금은 1931년 11월 15일 하와이에서 특무공작에 대한 지원금으로 1천 달러를 보내 온 것이 있었다. 『백범일지』에 따르면, 하와이 와히아와(Wahiawa) 지방에 있던 중립적 성향의 인사들인 임성우·안창호(安昌鎬) 등으로부터 "우리 민족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돈을 주선하겠다"는 연락이 김구에게 왔다. 이에 백범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으나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조용히 자금을 모았다가 보내달라는 통지가 있을 때에 보내라"고 하였다.[25] 이와 같이 하와이의 한인들은 김구에게 특무공작이 있으면 후원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였던 것이고, 1931년 9월 김구가 계획한 특무공작에 찬성을 하였다. 이후 '동경의거'를 계획한 김구는 하와이의 한인들에게 특무공작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였고, 그해 11월 15일 1천 달러의 자금을 보냈던 것이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그 무렵 하와이에서는 명목을 정한 몇 백 달러의 미화를 상해로 보내왔다. 나는 그 돈을 받아서 거지 복색인 전대 속에 몰래 감추어 두고 예전 그대로 걸식생활을 계속하였다.[26]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김구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그는 그 자금을 깊숙이 숨겨두었다가 이봉창에게 건네주었던 것이다.

이봉창의거를 위해 김구에게 자금을 지원한 단체는 이후 '하와이애국단'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하와이의 한인들인 김경옥·김예준·김성옥·현도명·김태정·김형기·김기순 등 오아후섬 와히아와지방의 인사들이 원동지

25)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321쪽.
26)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325쪽.

방의 특무공작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한 비밀결사였다고 한다.[27] 김구가 하와이 한인들과 정확히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임시정부가 침체상태에 빠져있을 때, 김구는 엄항섭과 안공근의 도움으로 미주지역 몇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알아내어 임시정부의 현상황을 극진히 설명하여 동정을 구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엄항섭과 안공근에게 편지의 겉봉을 쓰게 하여 보냈고, 그것에 회답하는 동포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28]

이를 미루어 추측컨대, 김구가 보낸 편지를 받은 하와이의 한인들이 김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미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구에게 자금을 지원한 단체의 정식명칭은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하와이애국단'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은 낮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중립적인 인사들인 임성우·김경옥·김예준·김성옥·현도명·김태정·김형기·김기순 등은 1928년경부터 비밀당(The Korean Secret Society)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1931년 11월 15일 김구의 특무공작을 후원하기 위해 1천 달러의 자금을 중국 상해로 보냈다고 한다.[29]

그런데 이봉창의 '동경의거'가 일어난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비밀결사로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주지하다시피 이봉창의거의 배후에는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있었고, 김구의 특무공작을 적극 지원하였던 하와이의 비밀결사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드러낼 필요성이 있었다. 『재미한인오십년사』에는 1932년 2월 14일 '하와이애국단'이라는 단체명으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독립당하와이총지부 자치

27)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Reedley, 1959, 216쪽.

28)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321쪽.

29)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76쪽.

규정」 맨 앞장에 있는 「애국단약사」에는 1934년 4월 10일 "미령 하와이에 설립된 애국단지부"가 하와이애국단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30]

그러나 필자는 그 전에 조직되어 있었던 '비밀당'의 조직이 이봉창의거 직후 바로 '하와이애국단'이라는 조직명으로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한인애국단 하와이 지부'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왜냐하면 하와이에서 김구를 지원하는 비밀결사의 조직명으로 다양한 이름이 작명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인애국단'과 같은 '하와이애국단'이라고 명명하였겠는가. 그 이유는 김구의 특무공작을 하는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었고, 이를 적극 후원하는 단체도 같은 조직명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봉창의거 직후 '하와이애국단'이라는 조직명을 공식화 한 것은 아니고, '한인애국단 하와이 지부'로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위의 「한국독립당하와이총지부 자치규정」의 「애국단약사」에 하와이애국단은 1934년 4월 10일에 조직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재미한인오십년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34년 4월 10일 조병요·안창호·이대진·최찬영·유진석·이봉수·김예윤·박이조·김형택·안영호·양성학·김현구·김원용 등이 참가하여 단의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자료를 종합하면, 이봉창의거 이전에 비밀결사가 거사직후에 '한인애국단 하와이지부'로 존재하다가, 1934년 4월 '하와이애국단'으로 공식화되었다고 봐야만 한다.

1920년대 중반 이후 하와이 한인들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4월 1일 현순이 중심이 되어 70여명의 한인들이 '임시정부후원회'를 조직하면서부터이다.[31] 임시정부후원회를 설립한 배경에 대해 『신한민보』 1925년 3월 12일자에서는, 임시정부의 관청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외인의

30)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76쪽.

31) 《신한민보》 1925년 5월 22일자, 「임시정부 후원하는 이유」.

수치를 당하게 됨을 개탄하여 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조직한다고 한다.[32] 임시정부후원회를 이끄는 주도자는 현순이며, 그 외 중립적 성향의 황사용·정원명·최두숙·강영호 등이 참여하였다. 회의 주요 사업은 재정적으로 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인구세 1원씩을 거두어 임시정부 서무부로 보내는 것이었다.

임시정부후원회의 목적은 회명 그대로 임시정부를 후원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와이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후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에 하와이 임시정부후원회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재무부로부터 하와이 동포들의 재정징수권을 위임받아 하와이에서 모금된 자금은 후원회를 통해 임시정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33]

이에 따라 임정후원회의 조직은 재무적 역할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고, 회장에는 정원명, 부회장에는 강영효, 재무에는 함삼여, 이사부원에는 현순·임준호·정봉관·강영각 등 대조선독립단측 성향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약 7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34] 현순이 목사로 활동하였던 카우아이섬 리후에(Lihue)지방에서도 임시정부후원회를 돕기로 하였다고 한다.[35]

위의 임시정부후원회는 1932년 4월 윤봉길의 홍구공원의거를 계기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홍구공원의거 이후 독립운동의 열기가 그해 5월 22일 오아후섬 와히아와지역의 한인 37명이 또 임시정부후원회(The League to Suppor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를 정식으로 조직하였다.[36] 그리고 기관지로는 『시사근문』이라는 등사판 신문을 발행하였다.[37] 임시정부

32) 《신한민보》 1925년 3월 12일자, 「정부후원회」.

33) 《단산시보》 1925년 5월 23일자, 「臨時政府後援會公佈文」.

34) 《신한민보》 1925년 5월 12일자, 「정부 후원회」; 6월 11일자, 「단산시보 간행」.

35) 《단산시보》 1925년 5월 23일자, 「지방소식」.

36) 《신한민보》 1932년 6월 2일자, 「임시정부 와히아와후원회」;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77쪽.

37) 《신한민보》 1932년 6월 16일자, 「와히아와에 시사근문 신문 발행」.

와히아와후원회의 이사장에는 김기순, 서기에는 김성옥, 재무에는 현도명·김려준·김태형·김형기·김경옥 등이고,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인구세로 1년에 12달러 이상을 내기로 하였다.[38]

위의 임시정부후원회와 더불어 하와이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한 단체로는 '한인단합회'가 있다. 카우아이섬의 한인들은 1930년 3월 9일 '가와도 대한인단합회'를 조직하여 1개월에 1원 25전씩 저축하여 독립운동을 후원하고자 하였다. 한인단합회는 『한인협회공보』 제5호(1930. 3. 20)에 의하면,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단체의 명칭은 '한인자치회'였던 것같고, 창립과 동시에 '한인단합회'로 변경하였다고 한다.[39] 한인단합회는 설립 당시 자치호조, 혁명응원, 교육장려를 통해 대일항전을 위한 혁명군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표방하였다. 이같은 목표하에 회비는 매월 1인당 1원 25전을 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25전은 자치금으로 1원은 혁명적립금으로 한다고 하였다.

카우아이섬의 한인단합회는 한인사회의 통일과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활동을 벌렸다. 창립당시 회원은 약 40여명 정도였고,[40] 회장에는 이홍기, 부회장에는 김상호, 서기에는 한태경, 재무에는 정호영, 총무에는 조치삼, 사교원에는 안순남·정원현, 이사에는 정준영·최근하·임경래·도서산을 선출하였다.[41] 그리고 다음해 3월 임원선거에서는 회장에 김상호, 부회장에 정춘영, 서기에 채인영, 재무에 전록영이 선출되었다. 카우아이 한인단합회는 김구에

38) 《신한민보》 1932년 6월 2일자, 「임시정부 와히아와후원회」.

39)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29쪽.

40) 《신한민보》 1930년 7월 24일자, 「가와이 단합회 진흥」. 카우아이 단합회의 제2대 임원선거는 1931년 3월 1일 개최되었는데, 회장에는 김상호, 부회장에는 정춘영, 서기에는 채인영, 재무에는 전록영 등이 선출되었다(《The American-Korean》 1931년 3월 21일자, 「Kauai Koreans Enjoy Patriotic Program at Lawai Beach」).

41)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30쪽.

게 6백 달러를 보냈고,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도 3백 달러를 또 보냈다.[42] 존 K. 현(John K Hyun)의 『국민회 약사』에도 "카우아이에 사는 200여명의 한인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1,000달러를 모금했다(재무담당이었던 김상호가 그중 500달러를 헌금했다)"라고 한다.[43]

5. 이봉창의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봉창의 동경의거는 지금까지 김구를 단장으로 하는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봉창의거는 김구 개인의 의열투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명령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서면의 「이봉창의사 관련 자료를 찾아서」라는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이봉창의거'가 국가기관의 명령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44]

이봉창의거와 윤봉길의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에 대해 두 의거의 직접적인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먼저 말해야만 할 것이다. 두 의거의 뒤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무조직인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이다. 김구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거 직후 피치(G. A. Fitch)박사 집으로 피신하여, 자신이 홍구공원의거를 일으킨 주모자임을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피체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당시 피치박사 집에 피신한 사람은 김구를 비롯하여 그

42) 《신한민보》 1932년 6월 2일자, 「가와이 후원회」.

43) John K 玄, 『국민회약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6, 27쪽.

44) 최서면, 「이봉창의사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이봉창의거의 진실과 왜곡』,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2006, 29쪽.

의 측근인 안공근·엄항섭·김철 네 사람이었는데, 『백범일지』에는 "엄항섭으로 하여금 선언문을 기초하게 하고 피치 부인에게 영문으로 번역시켜 로이터 통신사에 투고하였다"고 하였다.[45]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는 중국의 각 신문사에 전달되었고 이를 받은 신문사에서는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여 실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사신보』가 맨 처음 보도하였고, 이어서 『시보(時報)』·『대공보(大公報)』 등이 5월 10일자로 보도하였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보면 "미국인 피치는 당지 외국인 YMCA의 주사(主事)인데 그의 부(父)는 당지에서 저명한 목사이며 그의 형은 목사로 지금 항주(杭州)에 있다. 중국에서 태어난 관계상 극단적인 친중배일사상을 가지고 있어 앞서 김구가 발표한 영문의 선언서도 동인의 원조하에 행해진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46] 하였다.

그후 김구는 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홍구공원 폭탄안의 진상(虹口公園爆彈案眞狀)」이라는 제목으로, 국한문으로 된 3장의 프린트본을 만들어 널리 배포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프린터본 「홍구공원 폭탄안의 진상」은 영문으로 발표된 것보다 훨씬 자세하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경모(敬慕)하고 결애(潔愛)하는 김구선생"이라는 표현과 "우리가 잘 아는 그는 금년에 57세 된 한 노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김구의 최측근 인물인 엄항섭이 쓴 것으로 판단된다.

국한문으로 작성된 프린터본 「홍구공원 폭탄안의 진상」에는 맨 앞에는 영문으로 'K. P. P'라고 하여 '한인애국단(Korean Patriots Party)'을 약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상해의거'의 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거사를 일으킨 단체가 '한인애국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컨대, '애국단의 일원', '애국단은 어떠한 것인가', '애국단의 수령은 누구냐' 등의 목차를 달아 '동경의거'와 '상해의거'의 주체는 모두 한인애국단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45)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339쪽.

4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120쪽.

따라서 문서는 이봉창·윤봉길 의거에 대해 뿐만 아니라 한인애국단의 조직 목적과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애국단은 한국민족주의의 조국광복을 위하여 성립된 절대 비밀단체이니 이것은 파괴·암살 등 극단의 공포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일종의 별동대다. 해단(該團)의 신조는 공포정책을 실행치 아니하고는 한국의 영원한 해방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리한 무기와 넉넉한 경비를 가지지 못한 혁명자의 성공의 길은 오직 이것뿐이라 한다. 그럼으로 강한(强悍)한 일본군대도 거대한 일본의 재정도 예리한 일본의 병기도 그 외의 어떠한 강력도 그들에게는 일호(一毫)의 위엄(威嚴)이 없다. … 해단의 단원이 되는 자는 오직 그 수령 1인과 일종의 굳은 선서를 행하고 해단의 종지(宗旨)와 및 혁명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을 약속함을 요하며, 단원 자체간에서도 누가 단원임을 알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여, 한인애국단은 절대 비밀결사로서 파괴와 암살과 같은 의열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단체이며, 단장은 '김구'라는 점을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금년 1월 8일에 동경에서 일황을 저격한 이봉창의 사도 애국단의 일원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한인애국단은 비밀 결사체로 김구가 특무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특무활동을 결행할 인물을 선정하고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태극기 앞에서 입단 선서문을 목에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입단식을 대신하곤 하였다. 이봉창과 윤봉길은 한인애국단의 단원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거사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명령에 의해 의거를 결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봉창의거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명령을 받아서 거사를 진행하였던 것이고, 이봉창은 특수 공무를 집행하다가 일제에게 피체되어 희생된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인애국단에서 수행한 거사를 백범이나 당사자만의 의거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봉창·윤봉길 두 의거는 정부의 공식기관인 한인애국단의 명령을 받은 단원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국한 것이다. 이봉창의 일본에서 거사를 준비하는 동안 김구는 1931년 12월 6일 밤에 임시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이봉창이란 자를 동경에 파견 폭탄을 투척하도록 거의 차(此)의 준비 일체를 완료하였으므로써 승낙하여 주기를 바란다.[47]

김구는 국무회의에서 이봉창이 일왕을 폭살시킬 계획을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조소앙과 김철은 경비만 들뿐이고 성공할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서 반대하였으나,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이 승인을 하였다.

이처럼 이봉창의 의거는 임시정부의 공식기관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고 국가의 공적기구인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봉창은 국가기관의 공적인 명령으로 일왕을 처단한 것이고, 이봉창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제에 피체된 것으로 봐야한다.

6. 맺음말

이상 위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

4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임정편Ⅱ), 1971, 257쪽.

봉창이 의열투쟁의 대상으로 굳이 '일왕'을 택한 이유는 군국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천황'은 국가를 초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와 수탈의 최정점에 앉아 있는 '천황'을 인류 양심의 이름으로 척살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이봉창은 의거 직후 일제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봉창은 일제의 신문을 받는 동안 가능한 사실을 은폐하여 일제측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이다. 이봉창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써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자 하였던 것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구는 이봉창의거에 이어 윤봉길의 홍구공원의거, 유상근·최흥식의 대련의거 등의 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이봉창·윤봉길의거에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하와이 한인들이 있었다. 이봉창의거를 위해 김구에게 자금을 지원한 단체는 이후 '하와이애국단'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이봉창의거 직후 '한인애국단 하와이지부'로 존재하다가, 1934년 4월 '하와이애국단'으로 공식화되었다. 또한 하와이지방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한 단체로는 카우아이섬의 '한인단합회'가 있다. 한인단합회는 한인사회의 통일과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김구에게 6백 달러를 보냈고,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도 3백 달러를 보냈다.

네 번째로, 이봉창의거의 평가문제이다. 지금까지 한인애국단에서 수행한 거사를 백범이나 당사자만의 의거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봉창과 윤봉길은 한인애국단의 단원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거사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명령에 의해 의거를 결행하였던 것이다. 이봉창의거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명령을 받아서 거사를 진행하였던 것이고, 이봉창은 특수공무를 집행하다가 일제에게 피체되어 희생된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이봉창의거의 역사적인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

다. 『기려수필』의 저자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는 이봉창과 그의 의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그들(박열·이봉창)의 충의(忠義)는 해와 달을 다툴 정도로 빛나 천지에 드높일 만한 것이다. …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사람을 저격한 것은, 이제까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황제를 향해서 폭탄을 투척한 것은 이봉창·박열이 처음이다. 한 명의 평범한 사내가 만승(萬乘)의 황제를 죽일 것을 도모한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창해역사(滄海力士)와 이봉창 뿐이다. 이미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 적중하지 못했다. 비록 거사가 통쾌하게 성공한 것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필부(匹夫)로서 만승의 황제를 한번 놀라게 했으니, 창해역사와 이봉창은 모두 대장부이다. 어찌 적중하고 적중하지 못한 것으로 그 우열(優劣)을 논할 수 있겠는가.[48]

이봉창이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안타깝게도 궁내부대신의 마차를 조금 부셨을 뿐이었다. 이같은 이봉창의거를 송상도는 마치 한(漢)나라의 장량(張良)이 진시황(秦始皇)을 제거하려는 거사에 비견하여 설명하였다. 즉, 한나라가 진나라에 망하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창해역사에게 철퇴를 들려 박랑사중(博浪沙中)에서 진시황을 저격하게 하였으나 그의 부차(副車)를 맞췄을 뿐이다. 송상도는 이봉창의 의거가 마치 진시황을 제거하는 고사에 비견되는 역사상의 대사건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것이 성공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적중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봉창 이전에도 박열이나 김지섭과 같이 일왕을 목표로 둔 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왕을 처단하고자 한 것은 이봉창의거가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일왕을 제거하고자 한 것은 일제의 압제하에 놓인 한국인의 처

48) 송상도,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55, 420쪽.

지에서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일왕은 모든 침략의 정점에 있었고 그로부터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압제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그를 제거하는 것은 일제의 침략을 종식시키는 것이고 식민지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봉창은 일왕을 처단하는 것이 곧 인류의 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